



# 한인회보

Washington State Korean News

The Wash. State Korean News  
is Published Monthly by Seattle  
Wash. State Korean Association  
P.O.Box 24992 Seattle, WA 98124  
James H. Kim Publisher  
Soo Ho Lee Editor

VOL 4 No.9

SEATTLE WASHINGTON STATE KOREAN ASSOCIATION

OCTOBER 1977



(Kang Kang Sul Leya)

## 제 11회 정기총회 공고

1. 일시: 1977년 11월 12일 (토). 오후 7시 부터
2. 장소: 104 17<sup>th</sup> Ave. S. (at yesler way)  
Seattle. WA.
3. 안건: 사업 보고  
재정 보고  
'78년도 회장단과 이사 선거.

위와 같이 공고 함.

1977년 10월 24일

한인 회장 김형진

GENERAL ELECTION  
NOV. 12, 1977. 7PM.  
AT 104 17<sup>th</sup> AVE S.  
(at yesler way)  
Seattle. wa.

# 1978년도 한인회 회장 및 이사 후보자 공고

씨아틀·와싱턴주 한인회 회칙 제 4장 19조 제 3항에 의거  
1978년도 한인회 회장 및 이사 입후보자를 다음과 같이 공  
고 함.

다 음

1. 회장 입후보자:

**김 형진 조 영**

2. 이사 입후보자:

**김 재호 한 만섭 황 수철**

3. 이상 입후보자 중에서 회장 1명과 이사 2명을 1977  
년 11월 12일 오후 7시 정기 총회시 선출 함.

1977년 10월 27일

선거 관리위원장 신 호 범  
위원 이 현기 이 종익  
이 순모 김 명원

## 1978년도 선거에 즈음하여

선거 관리위원장 신 호 범

와싱턴주에 거주하시는 교민 여러분 안녕 하십니까?  
1978년도 씨아틀·와싱턴주 한인회 회장·이사 선거  
를 앞두고 여러분께 간단한 안배의 말씀을 드리겠습니  
다. 이미 선거 관리위원회에서는 9월호 한인회보에  
공고한대로 순조롭게 선거 준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1월 12일로 결정된 한인회 총회시에 78년도 한인  
회장과 이사 2명을 선거하게 됩니다. 회장과 이사에  
출마하는 분들은 공고한바와 같으며 여러 회원들의 투  
표에 의하여 선출 할 것입니다. 이날 투표에 참가  
할 수 있는 사람은 금년도 한인회비를 납부한자들이며  
11월 12일 투표장에서 회비를 내시는분들도 투표권을  
갖게 됩니다. 아직 회비를 내시지 않았어도 당일 납  
부 하시면 됩니다. 여러 교민들께서는 바쁘실줄 아오  
나 이날 참석하셔서 내년도 한인회를 이끌어 갈 수  
있는 참된 일꾼을 여러분의 힘으로 선출해 주시기 바  
랍니다. 여러분께서 한인회에 관심을 가지시고 정당한  
투표권을 행사 하실때 그만큼 우리 한인 사회는 발전  
될수 있을 것입니다. 시간을 내셔서 이번 총회와 선  
거에 많이 참석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 여러분의 주소를 기다립니다

78년도 한인 주소록에 여러 교포들의 주소, 이름,  
전화 번호를 실어 드리겠습니다. 아직도 보내지지  
않은 가정에서는 11월 5일까지 보내시기 바랍니다.  
와싱턴주에 거주 하시는 어느 가정이나 실을수 있습  
니다. 다음 양식에 쓰셔서 오려서 보내시면 됩니다.

|    |       |    |
|----|-------|----|
| 이름 | 한글( ) | 전화 |
|    | 영문( ) |    |
| 주소 |       |    |

보낼 주소: Korean Association  
P.O. Box 24992, Sea. Wa. 98124

## - 회장 후보자를 찾아서 -

78년도 한인회장 선거를 앞두고 12,000명을 추산  
하는 와싱턴주의 교민들은 어느 후보가 참된 일꾼인가  
를 알 권리가 있고, 알아야만 올바른 선택을 할수 있  
을 것이다. 편집인은 두 후보에게 꼭 같은 기회를  
주기 위하여 회보 발간도 늦추면서 기다려 왔었다.  
김 형진 현 한인회장에 재출마의 포부와 계획을 물  
었더니 자기의 계획을 자세히 설명 하였다. 그러나  
조 영 후보는 일체 말 하지 않았다. 선거관리 위원  
회에서 지상에 발표하지 않기로 했기 때문이라는 것이  
다. 과연 우리 교포들은 어느 후보가 한인회장으로서  
적격인가를 알 필요가 없는것일까? 10분간 투표장에  
서 소견 발표를 듣는것으로 충분 할것인가? 12,000  
명을 추산하는 모든 교포들은 회장 후보자의 자격이나  
인격, 능력에 대하여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생  
각하고 판단한 다음에 투표장에 나오는 것이 너무나  
상식적이고 당연한 일이다. 선거 관리 위원회에서 한  
인 회보에 후보자들의 소견을 발표하지 않고 침묵으로  
지내다가 투표장에서만 10분간 말하게 결정하였다니  
정상적인 상식으로는 이해 하기가 어렵다. 본 편집인  
은 많은 교포들의 냉철한 비판이 있으리라 생각한다.  
김 형진 회장은 자신의 계획과 포부를 한인 회보를  
통하여 여러 교포들에게 알리기 위하여 준비하였으나,  
조 영 후보가 발표하는 것을 꺼려한다는 말을 듣고  
그렇다면 김 형진씨 자신도 양보하며 발표하지 않겠  
고 하였다. 따라서 한인회보에서는 두 후보의 계획이  
나 포부에 관하여 알길이 없다. 과연 이것이 올바른  
처사인지에 대해서는 이 글을 읽는 교포들의 판단에  
맡길수 밖에 없다. 현명한 우리 교포들은 한인사회의  
장래를 위하여 냉철하게 판단해야 할것이며 일시적인  
기분이나 파벌 의식을 가지고 투표장에 나와서는 안되  
리라 생각한다. 회장을 위한 선거가 되어서는 안되며  
많은 교포들을 위한 선거가 되어야 할 것이다.  
과연 어느 후보가 자기의 시간과 노력과 정신을, 우리  
교포들을 위하여 봉사적으로 노력 할수 있는가 하는것  
이 중요하다고 본다.

- 편집 실 -

# 안 내

## 법률 상담. 11월 10일 오후 6시

한인회에서는 한인회 법률고문 Clinton 씨를 초빙하여 한국인들을 위한 법률상담회를 개최하기로 하였습니다. 11월 10일 오후 6시부터 시작되며 장소는 한인 봉사센터입니다. 상담 내용은 (1) 사업 시작과 운영에 관한 문제. (2) 가정 문제 (3) 이민에 관한 문제 등입니다. 기타 여러 고민들이 궁금한 문제에 관하여도 상담이 가능 하오니 많이 참석하여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이날 상담은 무료입니다. 봉사센터는 612. 6th Ave. So에 있으며 전화는 624-7604 와 7607입니다.

## 소기업 융자 상담 (S.B.A)

11월 10일 오후 6시 한인 봉사센터에서 있을 예정인 법률상담에 이어서 사업을 하시는 분과 사업을 시작하려는 분들을 위하여 소기업 융자를 위한 상담회를 개최 합니다. 이 관계에 종사하고 있는 William Wade씨를 초빙하여 관심 있는 한국인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하오니 많이 참석 하시기 바랍니다. 한국말로 된 설명서도 준비 되어 있으며 무료입니다. 사업을 할 때 정부의 원조를 받는 방법과 융자에 관하여 설명을 들으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11월 10일 오후 6시 부터 시작되는 두가지 상담회에 많은 분들의 참석을 바랍니다. 위의 법률상담과 소기업을 위한 융자관계 상담에 참석을 원하시는 분들은 봉사센터로 미리 전화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인 봉사센터 624-7604  
624-7607

## 코뮤니티 건설에 우리 힘을 모으자

김 태

우리 한국인이 이곳 미국 땅에 발을 디딘지 벌써 수십 년이 되지만 다른 어느 동양계 이민자들 보다는 미국 사회에 배린 뿌리가 아직 연약함을 안타깝게 생각하는 이는 한둘이 아닐 것이다. 수십년전의 우리의 선배들은 오늘날보다 더욱 어려운 여건 밑에서도 조국의 광복을 위해 남의 머슴같은 생활에서 남의 농장에서 피땀흘려 얻은 돈을 사슴치 않고 나라를 찾는 일에 바쳤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오늘날 이곳 씨아틀만 하더라도 다른 동양계는 그들의 코뮤니티를 형성하고 수다한 문화 경제기관 나아가서는 노인들의 복지시설까지 갖추어 놓고 있지만, 과거 남다른 무거운 멍에를 지었던 탓인지 우리들만은 아직 못하고 있음을 마음 무겁게 생각한다. 어떻게 생각하면 분통도 하고. 남들의 해놓은 것이 부럽기도 하지만 조국을 찾겠다고 애쓰셨던 선배 어른들을 생각하면 그분들에게 미안함과 부끄러움과 아울러 우리들의 책임이 막중함을 느끼게 된다. 우리는 과거 6.25 사변으로 초토가 다 되었던 땅에 새도시를 건설하였고 농토를 일구고 후진국이라는 탈을 벗어 중진국의 수준까지 경제 문화 면을 발전시키는데 일익을 담당했었다. 이같이 엄청난 역경을 극복하고 힘든 일을 합심해서 해냈던 우리들이 열과 성을 모은다면 그 무슨 일인들 또 못해버렸는가! 고향을 떠나 왔선 고장에 왔기는 우리 한국인이 나 중국인이나 일이나 다 마찬가지다. 단지 문제는 자기 코뮤니티를 위해서 무슨 일을 어떤방법으로 해내느냐 하는 것이다. 다행히도 이 고장에 이미 한인회가 조직되어 벌써 여러해 동안 많은 이들이 희생적으로 일을 해왔으며 올해에도 의욕적으로 여러가지 일들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그들 간부들이 하는 일을 우리 일반인들은 거저 먼산의 불구경 하듯 바라만 볼 것이 아니라 또한 그들 간부들의 폭넓은 활동만을 기대할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책임자가된 마음으로 적극적인

협조와 우리 힘으로 도울수 있는 일을 찾아야 할 것으로 안다. 이곳 미국이 아무리 만인에게 평등한 기회를 주고 자유를 보장하고 인권을 보호하는 곳이라고 해도 그러한 권리에 잡자고 가만히 있는 사람들까지 찾아다니며 누가 보호해 주지는 않는다. 우리 한인들 스스로가 그러한 권리를 주장하고 사회적 경제적 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언젠가는 정계에 까지라도 우리의 대표가 진출 할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물론 거기에는 우리 한국의 국력이 강력하여져 남들이 무시할 수 없게 뒷받침 되어야 할것은 물론이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곳 미국에 몸담고 있는 우리들 스스로가 이곳 사회 여러면에 적극성을 가지고 뛰어들어야 할 것이다. 우리들의 문화적 사회적 활동은 그 뒤에 강력한 경제적인 뒷받침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생각할때 우리는 경제적인 면을 담당하는 많은 사업체들의 육성을 위해 서로가 이용함으로써 비로소 커나갈 것이다. 우리 한국인들 스스로가 돕고 이용하여 키워지 않는 것을 동족도 아닌 남이 과연 대신해 줄 것인가? 예컨데 L.A의 우리 한인 코뮤니티를 보자. 중국인이 나 일본인들이 수십년 걸쳐 형성한 것을 불과 몇년 사이에 해버서 미국인들까지도 놀라게 하였고 무시할수 없게 만들었다. 각민족이 자기 고유의 민족 전통을 살려 여러가지 문화행사를 하고있고 심지어는 점포의 건물까지도 중국식 일본식으로 꾸며 자기들 코뮤니티 특성을 삼고 있다. 적은 규모로 시작되었던 식당 식품점들이 처음에는 호기심 반에서 들렀던 미국인들이 이제는 단골손님으로 변해 친구들까지도 몰려오게 되었다. 따라서 큰 규모의 식품도매상 까지 몇개씩 생기게 발전하였다 한다. 아직 이렇다할 식당이나 제머로 없는 이곳 씨아틀에도 오래지 않아 큰 규모의 Korea Center가 문을 열어 우리 한인 특유의 의류까지도 공급하게 되었다 하니 다행스럽고 대견하게 여겨진다. 이곳 다운타운이 중국인이 나 일본인만의 독점지일수는 없다. 우리도 그속에 파고들어 우리의 코뮤니티를 거창하게 건설해 보자. 지금은 너 나 할것 없이 허리띠를 졸라매며 잠이 모자라 눈을 부러가는 고달픈 생활들을 하고있지만 먼 훗날의 우리들의 자녀

들이 낙담하고 실망하지 않도록 우리는 오늘 다시한번 커다란 꿈을 그려보고 그 실현을 위해 결심을 해보도록 하였으면 한다.

(필자: Asian Counseling 근무)

## 한인 업체 동정

### \* 와싱턴 부동산 대표, 안 병용 씨

교포 안 병용씨는 얼마전 주식회사 설립 등기를 마치고 회사 이름을 와싱턴 Realty Inc.라 하였다. 씨아틀 다운타운 Terminal Sales 빌딩 510호에 사무실을 열고 있는 안 병용씨는 부동산과 보험을 취급한다고 하며, 유능한 Realtor 와 보험 매리인을 급히 모집 한다고 한다.

### \* 백 응기씨의 Grand Food

백 응기씨는 얼마전에 미국 식품점 'Grand Food'를 개업하여 성업중이라고 한다. 8512 20th Ave. N.E에 자리잡은 이 식품점은 한국인이 경영하는 것으로는 상당히 큰 규모이며 앞으로 한국 식품도 취급할 계획이라 한다.

### \* Gull 주유소 개업, 민중기 씨

민 중기씨는 9050 35th S.W. 씨아틀에 주유소를 개업, 성업중이라 한다.

### \* 김 광택씨, 바디 샵을 인수 경영

교포 배 윤천씨가 운영하던 바디 샵을 얼마전 김 광택씨가 인수 경영하게 되었다고 한다. 김 광택씨의 바디 샵은 2336 S.W.SPOKANE에 있으며 많은 교포들의 성원을 바란다고 한다. 전화는 935-9008

## 한인 업체 이용하여 키워 줍시다

○ 봉사센터 Open House 성료

10월 14일에 있었던 한인 봉사센터 Open House는 약 60명의 하객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끝났다. 한국인과 미국인이 거의 반반씩 참석한 이날의 인사를 중에는 한인 사회의 원로이신 이 창희 장노님 배외부와 서 두수 박사님 그리고 이사장 신호범 선생님과 이사님들이 참석 하셨으며 최 용걸 목사님 배외부도 참석하셨습니다. 미국인 중에는 우리 한인회에 항상 관심을 가지고 돕고 있는 Jack Slee 씨, Clinton 씨와 한인들이 많이 일하고 있는 몇몇 회사 사장님들도 참석하였다. 이사회에서 준비한 음식과 봉사센터에서 준비한 각종 다과를 들면서 화기애애한 담화가 9시 가까이 까지 계속 되었다. 이날 특히 이 창희 선생께서는 봉사센터 보조금으로 300불을 회사 하였고 Custom Draperies Co.에서 100불을 회사 하였다. 또한 토요일 축구회에서는 큰 벽시계를 기증 하였고 Grand Food에서는 Wine 네 병을 회사 하였다. Butcher Restaurant에서는 큰 화분을 보내 주었다.

○ 한인 연합 합창단, 미 감리교회에서 초청

한인 연합 합창단(단장 김 종원 박사)에서는 그동안 몇몇 임시 반주자가 있었으나 이번에 주 애리씨를 정식 반주자로 결정하였다고 한다. 또한 음번 11월 6일에는 미국 감리교회의 특별 초청에 의하여 미국인들에게 합창을 선 보인다고 한다. 이 합창단은 앞으로 성가를 중심으로 우리 가곡과 민요를 부른다고 하며, 요즈음 매월 첫째, 셋째 토요일에 정기적으로 모여 연습하고 있다 한다. 이 합창단에 가입을 원하는 한인들은 다음으로 연락을 바란다고 한다.

762-2423 이 수호씨  
632-4055 장 신재씨

○ 김 형진 회장, 미국 서적에 소개되다

한인회 김 형진 회장의 약력이 77/78년도 WHO's WHO in Finance & Industry 서적에 기록 소개 되었다고 한다. 이 책은 주로 산업과 재정 분야에서 활약한 유명한 분들의 약력이 실려 있다고 한다.

○ 토요일 축구회 총회

10월 8일 오후 5시 부터 약 2시간 동안 45가에 있는 Royal Fork에서는 토요일 축구회 회원들이 모여서 박 인주씨가 제공한 저녁식사를 끝낸 뒤 정기 총회를 가졌다고 한다. 이날 임원 개선이 있었는데 새로이 선출된 주무에는 이 신남씨, 교회에는 허 권씨가 되었다. 그동안 수고해 온 권 영길 씨와 이 수호씨는 하고 있는 일이 너무 바빠서 도저히 감당 할수 없어서 재임을 원하는 회원들의 요청을 받아 들일수가 없다고 하였다. 권 영길씨와 이 수호씨는 계속 축구회를 돕기로 약속 하였으며 특히 이 수호씨는 씨아틀 축구회의 발전을 위하여 내년도에는 4개팀(씨아틀, 밴쿠버, 타코마, 포트랜드) 리그전을 구상한다고 말 하였다.

○ Sonia Kim, 한국에 관한 자료 기증

한국에 다녀온 Sonia Kim(이화 여대 동창 회장)은 여러가지 한국에 관한 책자 10부를 한인회에 기증 하였으며 한국 고적 슬라이드 필름 60매를 한인회에 보관 이용 할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소니아 김은 한국에서 출애. 한인회에서 요청한 국민학교 교과서 22권도 함께 가지고 와서 지금 한인회에서 보관 이용하고 있다고 한다.

○ 이 양 남씨 E. O. C에 근무

변 증혜씨가 일을 보던 자리에는 얼마전에 이 양남씨가 채용되어 일을 하고 있는데 많은 교포들을 위하여 성의껏(주로 직장 소개) 일하리라고 한다.

○ 배 회조씨 Community Health Center 근무

여러분의 건강상담을 환영합니다. 622-9650

○ 한인 Social Worker 들 모임을 갖다

지난 10월 4일 오후 3시~5시에는 한인들을 위해서 각 기관에서 일하고 있는 분들의 모임이 E. O. C에서 있었다. 이날 참석자는 한인 봉사센터의 이 수호, 하 영희씨, E.O.C에 근무하는 김 홍기, 이 양남씨, Whashington State Asian American Advisory Board의 허 경화씨, Asian Counseling의 김 태, 이 양자씨 그리고 International District Community Health Center의 배 회조씨등이다. 이날 모임에서는 각자의 하고 있는 일들을 소개 하였으며 앞으로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고 한인들을 효과적으로 돕자고 하는데 의견을 모았다. 앞으로 도 이와 같은 모임을 가지면서 한인들을 위하여 많은 일들을 하기로 하였다. 특히 한인들만을 담당하고 있는 한인 봉사센터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고 그런의미에서 볼때 봉사센터는 계속 발전되어 명실공히 한인들을 돕기위한 든든한 기관이 되어야 할 것이라는 의견들이 있었다.

○ 이화여대 김 옥길 총장 씨아틀에

이화 여대 김 옥길 총장께서 11월 1일 12시 30분 씨아틀 공항에 도착, 동창회원들의 환영을 받는다고 한다. 씨아틀·타코마 지역에 살고 있는 이화 여대 동창회원들은 김 총장을 맞아 이날(11월1일)저녁 6시30분 Ballard에 있는 Wind Jammer에서 리셉션을 가지고 이어서 만찬회를 가지리라고 한다. 김 총장을 만나고 싶은 분들은 동창 회장 소니아 김에게 연락 하면 된다. 김 총장은 2일 5시에 L.A로 떠나신다고 한다.

연락 처: 낮 545-6745  
밤 363-2617

김 옥길 총장님의 씨아틀 방문을 환영 합니다.

- 씨아틀·와싱턴주 한인회 -

자랑스런 한국인

이 창희 옹

이 창희 선생에 대하여 여기에 새삼스레 무슨 말을 할 필요가 있을까마는 선생의 귀한 생각과 뜻을 우리 모든 한인들이 다시한번 되새겨 보자는 뜻에서 이 지면을 기획해 본다. 선생께서는 1948년 부터 오늘날 까지 큰 30년간을 씨아틀에서 살아오신 한인 이민사의 생생한 증인이시다. 황무지 상터였던 한인 사회에서 처음 한인회를 출발시켜 물심양면으로 도우면서 오늘에 이르게 하신 공로는 우리 모두가 머리숙여 존경하지 않을수 없다. 초대 한인회장과 이사장을 역임하시면서 한인들의 단결과 발전을 위하여 노력 하셨으며, 오늘날도 한인회 행사나 한인들을 위한 모임에는 노령에도 불구하고 꼭 참석하셔서 격려해 주신다. 한인 장로 교회 장노님이신 이 창희 선생께서는 올해 75세이시며 부인 김 간남 여사께서는 61세이시지만 젊은이 못지 않은 정력을 가지시고 보잉 회사에 근무하고 계신다. 슬하에는 1남 1녀의 성장한 자녀를 두고 계신다. 편집인이 곤황을 여쭙어 보았을때 몇가지를 말씀 하셨다. 교회 건물 구입관계의 일과 한인 합자의 모델 구입관계의 일로 시간을 보내면서 틈이 있을때면 분 글씨(한문 초서)를 쓰시는 일을 취미로 한다고 하셨다. 한인들이 더욱 단결 노력하여 한인회관을 건립하였으면 좋겠다는 말씀도 하셨다. 험한 세상을 오랜 세월 살아오셨으나 아무런 사심없이 신앙생활을 해오시는 이 창희 장노님에게서 우리는 모두 성실한 삶의 뜻을 배워야 될줄 안다. 현재 씨아틀 북동쪽 조용한 호숫가의 아담한 주택에서 살고계시는 선생의 높고 귀한 인격을 다시한번 생각해 보면서 오래오래 건강 하시기를 기도해 본다.

우리는 한국 사람.  
자랑스런 한국인이 됩시다



# 코리아

**신장 개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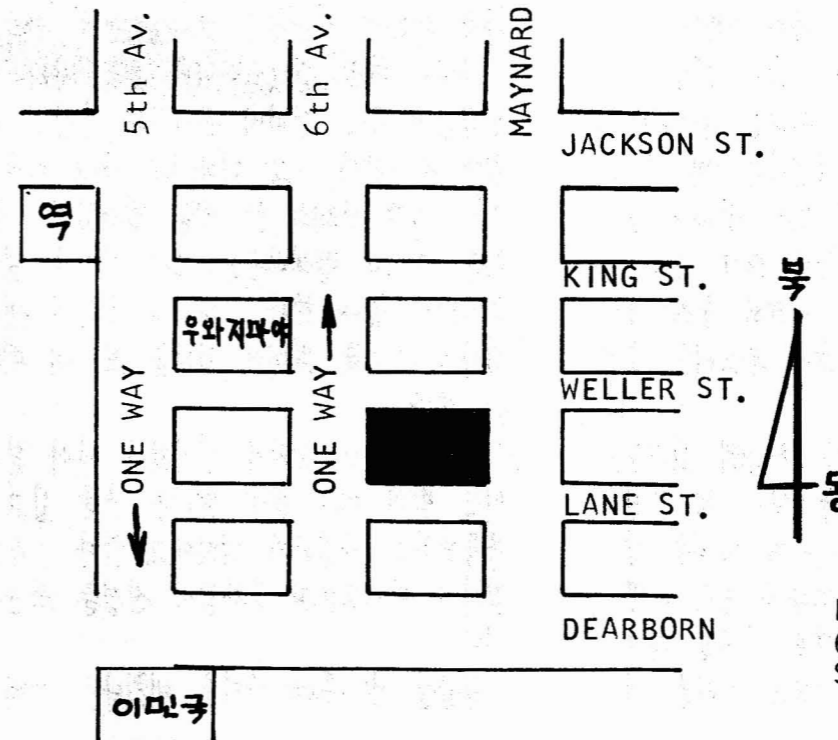
# 센터



- 생선 및 육류
- 간장 및 참기름류
- 라면 및 국수류
- 채소류 및 과일류
- 미국식품 및 생활필수품
- 한국서 직수입 품목
- 밀반찬류
- 곡 류

교민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인의 구미에 맞는 다양한 식품을  
 구비하고 일반 슈퍼마켓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봉사하기로 하였습니다.  
 일차 왕림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코리아 센터 배상



KOREA CENTER  
 616 6th Ave.  
 SEATTLE, WASH  
 ☎ 682-9092

(수필) **주부의 임무**

오 정 숙

창을 때리는 빛소리가 점점 크게 들린다. 아침 열 시인데 잿빛 하늘은 늦저녁 같다. 오늘이 8월 보름인데 밤에 달이 어떻게 비칠까 염려하는 마음은 아빠를 버조하며 아이 다섯을 돌보는 나에게서는 사치스러운 생각인지 모르겠다. 마음이 평화스러운 날은 매사가 만족스럽고 감사하며 아이들의 음식도 커여옵지만 어저렴 들볶이는 날은 모든 것이 힘에 겨웁고 커잡기만 하다.

올 여름엔 몇년간 방치해 두었던 집의 안과 밖을 수리하고 뽕끼칠을 하느라 펄 부산스러웠는데 이제 남은 일은 창가와 지붕 밑을 칠하다가 실수로 벽돌에 발라진 고르지 못한 흰색 부분을 벽돌 색으로 가리기 만하면 모든 일이 끝나게 된다. 어쩌면 오늘 안에 끝을 낼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는 마음으로 급히 솔질을 하고 있는데 여기 셋이 계속 엄마를 부르면서 울고 싸움으로 이전 그만두어야겠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9살난 큰 아이가 학교에서 돌아왔다.

아이가 내게로 오더니 베일은 학교에서 사진 찍는 날인데 친구들 누구도 또 누구도 새옷을 샀으니 자기도 새옷을 사달라고 한다. 안된다는 나의 대답에 이어 두번이나 「플리스」하며 졸라댄다. 몸과 신경이 무척 피곤한 중에 있던 나는 아이의 머리를 두번이나

세계 때려주었다. 우리는 아이가 다섯이기 때문에 다른 집처럼 아이가 하나 혹은 둘이 있는 집과는 경제 사정이 다르며 또 설령 엄마가 돈이 많이 있다 하더라도 다른 아이가 새옷을 샀다는 이유로 우리 아이도 새옷을 사주지는 않겠노라고 이윽이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소리를 쳤다.

두 아이의 기저기를 간 후 우유병을 하나씩 물리우고 부엌에서 양념을 다지고 있는데 두 살이 채 못된

네째 아이가 어느새 우유를 다먹고 나의 다리를 잡고 온다. 처음엔 열려보려고 애를 쓰다가 손은 바쁘는데 너무나 힘이 들고 짜증이 나서 발로 아이를 걷어차 버렸다. 아이는 나가 넘어지면서 죽는 소리를 버

고 온다. 하던일을 멈추고 아이를 안아주니 곧 잠이 들었다. 긴 의자에 눕히고 옆에있는 세타로 덮어주는 하던일을 계속했다.

다음 달에 세살이 될 셋째 아이가 어디서 수영복을 갖고 와서 입히라고 성화다. 추워서 못입는다고 몸짓을 해가며 타일러도 아랑곳 없다. 신경이 곤두선 나는 양념 묻은 손을 씻고 궁뎅이를 한대 함껏 때려주고는 감기가 걸리려면 걸리라고 중얼거리며 옷을 벗기고 비키니를 입혔다. 조금있다가 지하실에서 뚝이 갓 지난 막내가 급하게 우는 소리가 나서 뛰어 내려가 보니 의자에 올라 가기는 잘하지만 내려 올 줄을 몰라 떨어져서 입술에서 피가 나고 있었다.

저녁 식사를 하는데 큰 아이가 자기는 조금전에 여러가지를 먹어서 배가 고프지 않아 저녁을 안먹겠노라고 한다. 밥상에 와서 앉으라고 강요하려는 아빠에게 내버려 두라고 일르고는 뒷문으로 아무도 모르게 집을 나왔다. 어렸을 때 무엇을 꼭 하고싶을적에 부모님이 강경하게 반대하시면 얼마나 친구들이 부러운지 우리 엄마는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절없는 마음으로 울던 기억이 난다. 대수롭지 않은 일이었는데 좀 더 다정스럽게 말할수는 없었겠는가 후회가 된다. 이렇게까지 피곤해서 아이들에게 신경질을 부릴바에야 지저분한대로 마음 편하게 사는것이 낫지않겠는가 생각도 해본다.

가게에 문을 닫았을터이니 옷을 사러 갈 수도 없다. 생각끝에 두집 건너에 큰아이와 동갑인 미국 아이네 집엘 찾아갔다. 그 엄마에게 사정 이야기를 하고 초록색 예쁜 드레스 한 벌을 빌려왔다. 한쪽 구석에서 턱을 고이고 텔레비전을 보던 아이가 얼굴에 화색이 오르면서 좋아 한다. 자기가 원하던 새옷이 아니지만 엄마가 자기를 위해서 성의를 보인데 대해서 만족하는 것 같다.

새벽 7시도 못되어 인기척이 나서 일어나 보니 아이는 벌써 어제 밤에 빌려온 옷을 입고 있었다. 목욕도하고 아침까지 먹었다고 한다. 4학년이 되면서 갑자기 머리모양과 옷차림에 신경을 쓰는것이 눈에 보인다.

일곱살 난 둘째 아이를 깨웠다. 어제 저녁에 **빠진**

잇발을 대신해서 투스 휘리가 베키 밑에 남겨놓은 일 불짜리 지퍼가 좋을 뿐 사내 아이라 그런지 사진찍는 것에 마음을 두지 않는다. 머리가 덩수룩 한게 보기 싫어서 억지로 얹혀놓고 머리를 깎아주고 목욕물을 받아 주었다.

점심값을 55전씩 주어 학교로 보내면서 문앞에서 서서 오늘도 선생님 말씀 잘듣고 친구들과 화목하게 도와 달라고 기도를 한 후에 큰 아이더러 어제에는 엄마가 잘못 했으니 용서하라고 했더니 아이도 계면적게 웃으면서 자기가 잘못 했노라고 하고는 뛰어 밖으로 나가 버린다. 목욕물을 본 22개월밖에 차이가 없는 꼬마를 셋이서 자기들도 목욕하겠노라고 야단이다. 물에서 놀기는 좋아해도 머리를 감길때면 겁을내고 울면서 팔을 잡고 놓지않아 어렵다. 셋을 양안에 넣고 장난감 몇개를 물에 띄워주고는 유희를 하면서 노래를 했더니 고사리 손들을 흔들면서 저마다 노래를 한다고 소리를 지른다. 잠간의 틈을타서 성경 다섯장을 읽고 이 글을 쓴다. 두어시간만 더 나가서 일하면 밖에 일이 끝날것 같은데 오늘은 비가 오니 집안일이나 좀 정리하고 누어야겠다. 힘든 일과 높은데 뽕끼칠은 친정 동생들 넷이 토요일마다 두번 와서 해주었고 낮은 곳은 비가 애기를 잘 때마다 칠을 했는데 힘은 무척 들었지만 그전에 비해서 깨끗하고 또 손수한 일이라 대견해 보여서 공연히 나가서 집을 보곤한다.

어제 밤부터 오늘 아침 사이에 일어난 일들을 생각 해본다. 나 한사람이 지나치게 피곤하고 기분 나쁨으로 인해서 온 가족이 우울하고 불만했는데 나 한사람이 자신과 가족을 이해하려고 노력 할 때 가정의 분위기가 온화해진 것을 생각하면서 이번 일로 인해서 주부의 임무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배우게 되었다. 오늘은 간식을 준비했다가 아이들이 학교에서 오면 기쁘게 해주고 피곤해서 들어 올 아빠에게도 좀 더 따뜻한 마음으로 대해야겠다고 다짐 해본다.

( 필자 : 가정 주부 )

**새 학기를 맞이하여**

백 경 숙

긴 여름 방학이 지나고 다시 새학기를 맞이하여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맞이하게 된것을 진심으로 기뻐하는 바입니다. 지난 한해에 부족한 점들이 많았으리라고 생각되오나 서로서로 이해하고 도움으로서 말찬 결실을 맺게 된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새 학기 다시 모든 한국인 교사들은 여러분 자녀들의 뒤지는 여러 교과 학습의 이해를 도와 교과 학습의 진전과 영어 실력의 향상을 도울것이며 동시에 영어와 같은 수준의 한국어를 계속 구사할수 있도록 교육해서 여러분과 저희들이 원하는 바람직한 자녀 교육에 큰 공헌 할것을 굳게 다짐하는 바입니다. 또한 학생수의 증가에 의하여 새학교에 이중언어 교육프로그램이 더 첨가 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Job Bulletin (사람구합)**

- o Lands Caping Work. \$ 4.00  
약간의 영어를 할 수 있어야 함.
- o 연락처: 한인 봉사센터 624-7604
- o **한미관계 세미나 안내**

11월 5일 7시 30분 부터 4515 16th Ave. N.E에서 개최 된다고 합니다.

|   |                 |   |
|---|-----------------|---|
| <b>씨아들 한국여행사</b><br>Korea Travel Service<br>모국방문 특별할인, 국제 국내 항공권 판매<br>가족초청 및 제반여행 수속대행 |                 |   |
| <b>이</b><br>LEE   | <b>규</b><br>KYU | <b>영</b><br>Y.                          |
| Tel. (206) 623-9290 (Office)<br>(206) 322-3782 (Home)                                   |                 | 1928 Second Ave.<br>Seattle Wash. 98104 |

ORGANIZATION

The Seattle-Washington State Korean Association is a non-profit, state-wide organization in existence since 1967, incorporated under the law of the State of Washington and officially recognized as such by the U.S. Internal Revenue Service.

Its primary objectives are to promote and protect the welfare of the Korean-Americans, Korean immigrants, and other members in the State of Washington, specifically in the efforts of reducing unemployments among them and of assisting them in adjusting to the American society in order for them to become useful citizens. Its membership is open to anyone without discrimination.

KOREAN-AMERICAN AND IMMIGRANT POPULATION

Our studies indicate 5,000 in the Seattle area, 5,000 in the Tacoma area, and 2,000 in other metropolitan area (Spokane, Everett, Olympia, Bremerton, Bellingham, Vancouver).

It is known as one of the fastest growing Asian groups in the State. There are 13 churches (5 in Seattle), one Women's Association, one Welders' Association, Soccer Club, Chamber of Commerce, American-Korean Trade Club, Korean Students Association, Korean Choir Group, and Korean Society of Tacoma.

DESCRIPTION OF PROBLEMS

Major problems are (1) unemployment among the newly-arrived immigrants and (2) social adjustments on the part of these people and Korean ladies married to Americans. As they are unable to speak English well and unfamiliar with American way of life, it is very difficult for them to find jobs and to receive proper social services without an organization like ours. Our Korean Community Service Center is created to assist them in this area.

KOREAN COMMUNITY SERVICE CENTER

It is the Association's multi-service center staffed by two full-time workers, one Administrator/Program Director and the other, Counselor, whose positions are CETA-funded through the Employment Security Department of the State of Washington. Its operating expenses are being met by donations and membership dues. Please note that our Korean Community in general has had a visibility problem, as our people are often grouped and treated as one of the Japanese and Chinese communities for their look-alikeness. Our people are relatively new-comers compared to Japanese and Chinese, and for this reason unemployments and social problems among our people are greater. Thanks to the State's Employment Security Department, which made the operation of the Center possible by providing the two CETA positions. In fact, this is the first, major act done by the State for the benefit of our community. Many thanks to the Governor Ray.

Since the Service Center's operation from July 19, 1977, the following services have been provided by the Center:

- (1) Job placements (11 persons).
(2) Employment Counseling (35).
(3) Visitations to hospitals and interpretations for patients (29).
(4) Finding shelters and apartments (9).
(5) Domestic problems and counseling (28).
(6) Referrals of legal services (17).
(7) General counseling and referrals (25).
(8) Rides/transportation provided (17).
(9) Telephone calls and inquiries--10 to 15 a day.

FUTURE PROJECTS

We hope to include in our projects the following:

- (1) Publishing of bi-lingual newsletter.
(2) Drivers' training, translation of Drivers' Manual and Drivers Examinations.
(3) Social Service programs for senior citizens.
(4) Educations classes for teaching English and citizenship, and for businessmen.

YOUR HELP

We need your support in operating the Service Center to help those unemployed and socially maladjusted. There are many of those in our community. We will see to it that your assistance will not be wasted. What we are trying to do is to help ourselves to be useful to the larger community in which we live. In this spirit, we welcome your donation or pledge of donations if you wish.

Sincerely,
James H. Kim, President

I WOULD LIKE TO MAKE A CONTRIBUTION TO KOREAN COMMUNITY SERVICE CENTER AS FOLLOWS:

Check for \$ \_\_\_\_\_, made payable to KOREAN ASSN., or
Cash \$ \_\_\_\_\_, enclosed herewith.
My Name or Our Organization Name is \_\_\_\_\_
Address: \_\_\_\_\_
Phone: \_\_\_\_\_

Please mail your check to KOREAN ASSOCIATION
P.O. Box 24992, Seattle, Wa. 98124

인간은 천사도 아니요, 금수도 아니다. 그런데 불행한 것은 천사의 흉배를 버리는 자가 금수의 흉배를 내곤 하는 것이다. - 파스칼의 '팡세'에서 -

# 교회 소식



## ※ 형제교회 부흥회 성료

10월 5일 부터 9일까지 계속된 형제 교회 부흥 집회는 강사 임 영재 목사님의 인도로 성공리에 끝났다고 한다. 모든 교인들이 많은 은혜를 받고 감사하여 교회에 필요한 작은 버스(벤)를 구입 하게 되었다고 한다. 앞으로 형제 교회에서는 중 고등 학생과 노인들을 픽 업 하는데 이 버스를 이용 할 것이며 집회때 또한 이용 할 것이라고 한다.

## ※ 김 혜성 목사님 부흥회 인도하고 오심

제일 교회 김 혜성 목사님은 10월 13일~16일 까지 캐나다 토론토에 있는 대한 교회에서 부흥 집회를 인도하시고 돌아오셨는데 많은 은혜가 있었다고 한다.

## ※ 정 하경 목사님 침례교 지방 연회에 참석.

미국 침례교 노스 퓨젯사운드 연회에 시아를 한인 침례 교회에서 대표로 정 하경 목사님 이 계속 교수가 참석, 「서로 사랑하자」란 주제로 각 교회 대의권이 모여 은혜스럽게 지냈다고 한다.

## ※ 중앙교회 (타코마) 부흥회, 은혜중 성료

타코마 중앙교회(정 남석 목사 시무)에서는 대 부흥사 이 천석 목사님을 모시고 10월 20일 부터 23일 까지 부흥 집회를 가졌다고 한다. 시아를에 사는 많은 교인들도 이 천석 목사님의 설교를 듣기 위하여 참석 하였다고 한다.

## ※ 고 박 찬옥씨 장례식 엄수

지난 9월 19일 오후 6시 Bonny Wetson 에서 고 박 찬옥씨(박 인규씨 부친)의 장례식 이 최 용걸 목사님 주례로 엄수 되었다. 이 자리에는 한인회장 김 형진씨도 참석. 유족을 위로 하였다.

# 詩

## 꽃 인생들

박 신 자

무수한 행렬이 어제 처럼 호호한다  
내일도 또 내일은  
우직한 남정은 천세 천금을 꿈꾸고  
가련한 여인은 팔자 타령 하며  
걸어 간다  
영원히 사랑 한다던 순간들이  
기루한 운명이라며  
벽산 즐거움도  
심한 고통도  
세월처럼 순응한다  
부커를 누리는 행복  
불행하리란 가난도  
결코 자취 하면서  
다행스럽게 각본에 의한  
그길을 향해 오늘도 정신없이 밀려들 간다

## ※ 김 년수(김 의대)씨를 찾습니다

미 7사단에서 근무하셨던 김 년수(김 의대) 씨를(40세 가량) 동료였던 박 병삼 씨가 찾고 있습니다. 연락 처: 523-7057

## 이사

- 김 정부씨 (355-5648)  
914 93ST S.E.  
Everett, wa. 98201
- 최 창하 장노(침술사)  
전화 번호 정정 762-6493
- 안 기혁씨 (763-2058)  
6935 Delridge way S.W #302A  
Seattle, wa. 98166

# WR 워싱턴 부동산회사

WASHINGTON REALTY, INC.  
Terminal Sales Building #510 8717 So. Hosmer St. #G  
1932 - 1st Ave. Tacoma, Wash. 98444  
Seattle, Wash. 98101  
전화: 622-4120 전화: 535-3000



**안 병 용**  
(PHILIP B. AHN, BROKER)  
(Res.) 838-2010/927-7778  
**MLS**  
**박 영 민**  
(Res. Phone) 839-2051  
\*\*\*Member of 2 Multiple Listing Associations  
\*\*\*Full Service Real Estate Brokerage  
**부동산.투자.상담.재산관리.보험.무료상담.**

※ 급구: 유능한 Realtor 와 보험 대리인

**101 AUTO REPAIR**  
FOREIGN & DOMESTIC  
NAM-IL HO  
BUS. 525-5778 RES. 789-2655  
10059 AURORA N. SEATTLE, WASHINGTON 98133  
"ALL MAJOR & MINOR WORK DONE"

## 한인회·봉사센터 운영 기부금 납부자

- 이 접 태 ..... 10불
- 김 영 조 ..... 10불
- 이 충 호 ..... 10불
- 조 재 환 ..... 10불
- 오 준 결 ..... 50불
- 양 생 지 ..... 5불
- 오 윤 복 ..... 10불
- 안 병 용 ..... 100불
- 허 권 ..... 10불
- 이 창 희 ..... 300불
- J.L. Houston 직원 일동..... 14불
- Custom Draperies.. 100불

## 한인회비 납부자 명단(속)

10/22 현재

- 101. 김 근영 ..... 10불
- 102. 김 순겸 ..... 5불
- 103. 오 윤복 ..... 10불
- 104. 조 영 ..... 10불
- 105. 배 희조 ..... 5불
- 106. 안 병용 ..... 10불
- 107. 천 신자 ..... 10불
- 108. 서 두수 ..... 10불
- 109. 허 권 ..... 10불
- 110. 백 응기 ..... 10불
- 111. Nancy Morgan... 5불
- 112. 김 재호 ..... 20불
- 113. 김 명원 ..... 10불
- 114. 황 수철 ..... 10불
- 115. 조 갑철 ..... 5불
- 116. 이 쥬명 ..... 10불
- 117. 김 현중 ..... 10불
- 118. 최 용걸 ..... 10불

😊 집 없으면 집은 사시고  
😊 집 있으면 집을 파세요

**김 현 중 부동산** 여사  
(FRANK) HYUN CHOONG KIM

• 무료봉사: 값싼 이자로 양한 베드링.  
• 무료상담: 정확한 가격을 베드링니다.  
• 취급종류: 주례·아파트·호텔·도지  
·점포·기타사업 투자안내

PHONE: SEATTLE: RES. 774-7828, BUS. 774-7828, 525-7200  
TACOMA: 437-3112

## 연고 나서

엄연히 한인회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회장 후보자의 포부와 계획을 교포들에게 알리지 않았다는 생각은 무슨 이유일까? 누가 그런 피상한 아이디어를 개발 하였는가? 그 사람을 우리는 알아야겠다. 많은 교 포들에게 알리는 것이 좋은가, 널리 알리지 않는것이 좋은가? 길을 막고 삼척동자에게 물어보자. 대다수 교포들을 허수아비 바보로 알고 있는가?

# 김철준

# NEW YORK LIFE

# 보험



SEATTLE 사무실 : 363-3704

집 : 232-9207

TACOMA 사무실 : 588-0333

CHUL J. KIM  
FIELD UNDERWRIT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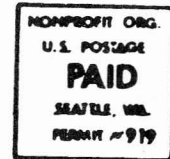
NEW YORK LIFE INSURANCE COMPANY  
4121 SEATTLE FIRST NAT'L BANK BLDG.  
SEATTLE, WA 98154  
363-3704

We guarantee tomorrow today.



## SEATTLE-WASHINGTON STATE KOREAN ASSOCIATION

P.O. BOX 24992 / SEATTLE, WASHINGTON 98124



12 15 Boston to Surf Fr. 185

1:4

— Fr. 32 Surf

Join

617-4982861

TWA

Tel - 800 227-4821

Toll free

98006

0257 000154005  
HAHN MAN SOP  
12904 SE 45TH LANE  
BELLEVUE WA